

“절망 대신 꿈 품었더니 웃는 날 오더군요”

광주시 서구 장애인 가족 수기 공모전 당선·응모작 모음집 ‘희망을 노래하다’ 발간

뇌병변·청각 장애 아들, 치료·사회 적응훈련 등 37년의 고군분투기 ‘대상’ 뇌병변 장애에도 ‘주부·사회 운동·시인...’ 1인 다역 사회활동 이야기 ‘금상’

“하염없이 기다리고 지쳐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서 제 눈 앞에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선물이었습니다.”

박모씨는 지적·뇌병변·청각 장애를 가진 아들의 엄마다. 박씨는 올해로 40세가 된 아들과 함께 하는 때 순간이 행복하다.

박씨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37년 전, 3살 배기 아들은 박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3층 옥상에서 떨어졌다. 박씨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일주일에 1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충당해야 했다. 15살이 될 때까지 수술을 받아야 했던 아들을 보면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고생 끝에 문을 연 식당은 IMF 외환위기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신용불량자가 된 채 여동생 집에 얹혀사는 중에도 아들은 때때로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곤 했다. 신발을 짝짝이로 신은 채 아들을 찾아 사방으로 뛰어다닌 것도 수차례, 그럼에도 그에게 가장 큰 보물이었던 아들을 포기할

순 없었다.

오빠의 도움을 받아 새로 식당을 열고, 일요일이면 시내로 나가 아들과 ‘사회적응훈련’을 하며 행복을 찾았다. 아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장난도 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곤 했다.

최근 박씨는 장사를 그만 두기로 결심했다. 박씨의 건강마저 나빠지기 시작하자, 아들과 더 알찬 매일을 보내고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박씨는 장애인 부모들에게 “기다림은 언젠가 큰 힘을 발휘한다”며 “지치고 힘들더라도,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노력하면 언젠가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박씨의 이야기는 최근 광주시 서구가 발간한 수기집 ‘희망을 노래하다’에 실렸다. 그는 서구에선 지난해 5~11월 진행된 장애인(가족) 수기 공모전에 글을 올려 대상을 받았다.

수기집에는 박씨의 이야기를 비롯해 수기 28편이 실렸다. 크고 작은 장애요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웃들이 ‘희망’과 ‘극복 의지’를 담아 쓴 글



이다.

금상을 수상한 장모씨의 이야기도 가슴을 울린다.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그는 “타인이 나를 보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말도 어눌하고, 많이 불편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면서도 “하지만 이게 내 모습이다.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면 멋진 삶이 된다”고 말했다.

장씨는 갓난아이 때 황달 치료가 늦어져 뇌성

마비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래를 그리며, ‘긍정의 힘’으로 고비를 넘겨 왔다.

그는 광주에서 특수유치원을 나와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세상은 점차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그를 이웃으로 받아들여줬다. 장씨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한 가정의 엄마이자 사회 운동가, 사회 부조리를 밝히는 칼럼니스트, 최근 첫 시집을 발표한 신인 시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장씨는 “세상을 탓하지 말 것”이라 조언한다. 언젠까지 장애인에게 불리한 사회 제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는 “삶의 고비가 찾아올 때 지혜롭게 넘어가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왔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기집에는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를 포함해 18개 동 주민센터, 서구장애인복지관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수시치과의사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여수시치과의사회는 지난 11일 ‘희망2021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이웃사랑 나눔 성금 500만원을 여수시에 전달했다.



〈사진〉

이번 성금은 여수지역 치과의사 28명의 치과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했으며, 지역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윤용식 여수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추운 겨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의료 봉사활동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여수시 치과의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미국서 운동주 시인 알리기 앞장 최연홍 시인 별세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 특별상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주최하는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 특별상(2016)을 수상하는 등 미국에서 운동주 시인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최연홍 시인이 최근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인의 동생인 최혁 전 제네바 대사에 따르면 최연홍 시인이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충북 영동 출신인 최연홍 시인은 연세대와 인디애나대에서 공부했으며 위스콘신대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고인은 1963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작품은 미국 여러 문예지에 발표됐다. 특히 미의회 도서관의 계관시인 초청으로 한국시인으로 처음 시를 낭송했으며 작품 ‘애리조



나 사막’은 ‘미국 남서부를 그린 최고의 시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인은 위싱턴에서 운동주 시인을 가리는 모임을 꾸려 선양 활동을 펼쳤다. 또한 운동주 시인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고, 논문 등을 통해 작품세계를 알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고인은 2016년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 특별상 수상소감에서 “위성된 자생의 운동주문학회를 출범시키는 등 한국문학의 지평 확대를 위해 작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인 모두 ‘지금’은 동주를 위해 울어야 할 때 인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건설근로자공제회-대광건설 퇴직공제 성실이행 협력 협약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지사장 이상현)는 지난 12일 ‘광주 금호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대광건설과 지역 건설기능인 권익 보호를 위한 ‘퇴직공제 성실이행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AI 확산 방지 가금농가·인근 방역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규)는 1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가금농가와 인근을 방역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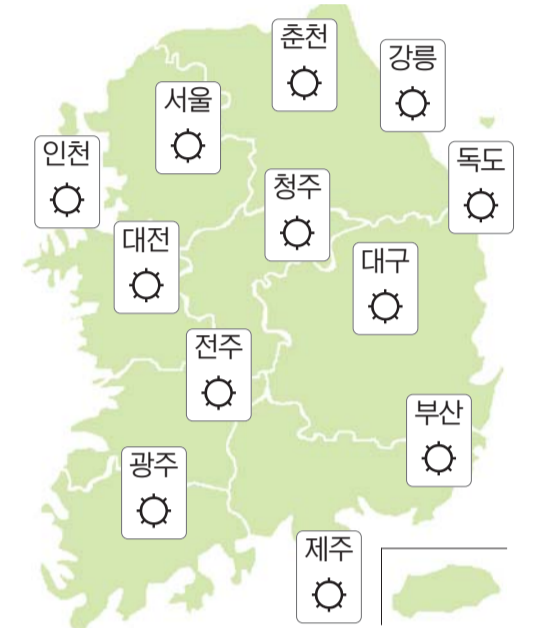
해돋이	07:41	달뜨기	08:36
해지기	17:43	달지기	18:44

한플 꺾인 추위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았다.

광주	맑음	0/13	보성	맑음	-4/10
목포	맑음	-1/11	순천	맑음	-1/13
여수	맑음	1/11	영광	맑음	-3/11
나주	맑음	-4/12	진도	맑음	1/12
완도	맑음	1/12	전주	맑음	-3/12
구례	맑음	-2/14	군산	맑음	-4/10
강진	맑음	-2/12	남원	맑음	-4/12
해남	맑음	-4/12	흑산도	맑음	5/11
장성	맑음	-3/12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1.0	0.5~1.0
	면바다(북)	1.0~1.5	1.0~1.5	1.0~1.5
	면바다(남)	1.0~1.5	1.0~1.5	1.0~1.5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0.5
	면바다(서)	1.0~2.0	0.5~1.5	0.5~1.5
	면바다(동)	1.0~1.5	0.5~1.0	0.5~1.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55 20:39	02:31 15:25
여수	03:30 16:16	10:15 22:12

◇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높음	높음	나쁨

◇ 주간 날씨

15(금)	16(토)	17(일)
☁	☀	☀
4/15	0/1	-5/1
18(월)	19(화)	20(수)
☀	☀	☀
-1/7	-3/6	-3/9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이정록(전남대 교수)·박영숙씨 장남 장현군, 배중석·서경숙씨 장녀 지후양=16일(토) 오후 2시 20분 광주 서구 라페스타 4층 디아망홀 062-366-7766.

알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급호,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자치의문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월·금·일 오후 5~9시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재료 등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휴대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고

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부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

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제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부음

▲김진영(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제도개선부장)씨 별세=발인 15일(금) 광주시 서구 풍서좌로 237 VIP장례타운 1층 101호 062-521-4444.